

다시 쓰는 하나님의성회 교리 42 김은철 목사 // 아가페교회 담임, 영국 세인트앤드류대학 Ph.D

제14장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③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세워진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견해이다.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누리에 임하여 세상은 의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되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임하신다는 것이다. 천년왕국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로 간주한다. 이러한 천년 기간(세계복음화)의 끝에 사탄은 잠시 동안 놓임을 받게 되고, 그 후에 항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계시록 20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기술이며, 20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천년통치는 그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를 말하며(계 20:1-10), 이후에 그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다.

(2) 천년이란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계시록 20장 1-3절의 천년은 지상에서 사탄을 결박하여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때(신약시대와 그 이후)로 해석하고, 4-6절의 천년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는 시기로 해석한다.

(3) 계시록 19장 11-21절에 기록된 "흰 말 탄 자"의 승리는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어느 한 시대를 가리킨다. 또한, 예수께서 천지의 권세를 받으셨으니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마 28:18).

그러나 이 견해의 근거는 부족하다.

(1) 계시록 20장 2-6절에 언급된 천년을 같은 의미의 천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두 종류의 천년 즉 교회시대의 천년과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의 천년으로 구분하여 이전천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신약시대와 그 후의 교회시대에 사탄이 결박되어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복음서와 다른 신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신약시대와 그 이후의 교회시대를 천년왕국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견해이다. 또

한,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왕 노릇할 신자들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 15:12-16).

(3) 말세에 성공적인 세계복음화로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은 말세에 가까울수록 불멸과 악이 더 성행한다는 예수의 예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마 24:9-14).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천년통치가 전혀 없다는 견해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기독교의 황금시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시대와 현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며 천년왕국을 거저지 않고 바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천년'이란 기간을 "완전한 시기"로 해석하며, 적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으로 간주한다.

(2) 두 부활(계 4:6, 12-15) 중 첫 번째 부활을 영의 부활로 해석하여 죽은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며, 두 번째 부활을 육의 부활로 해석하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3)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리니"(계 20:4)의 구절을 "육체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리니"라고 해석한다.

(4) '사탄의 결박' (계 20:2)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하신 것으로 해석한다. 이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인용한다.

(5)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동시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할

기간이 없다고 주장한다(마 25:31-46).

그러나 이 견해의 근거는 부족하다.

(1) 이 견해는 후천년설과 같이 천년과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사람일 것이며, 천년이란 숫자는 실제적인 기간일 것이다.

(2) 두 부활을 각각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로 해석하는 것은 지의적인 해석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의 영혼은 영적 구원을 얻었으므로 영의 부활은 필요 없고, 육의 부활이 필요한 것이다.

(3)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증언한다(고전 15:12-16, 52). 성도들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 같이 변화될 것이다.

(4) 신약시대를 사탄의 결박된 시기로 간주할 수 없다.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이다. 계시록 6-18장의 환난시대는 사탄의 활동과 미혹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5)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심판의 내용을 말한 것이지, 반드시 동시적 사건임을 말한 것은 아니다.

계시록은 종합 예언에 있어서 독특한 성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의 제시된 근거들은 부족하다.

연구문제

1. 대환난의 교훈은 무엇인가?
2.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엇인가?
3.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예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성경구절 하나는 무엇인가?
5. 왜 천년왕국설이 가장 믿을 수 있는가?
6. 후천년왕국설의 약점은 무엇인가?
7. 무천년왕국설의 약점은 무엇인가?

사랑실천국민운동본부

2011 한가위 '사랑의 송편 나누기'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등 소외계층에 사랑의 온정



사랑실천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찬성)가 한가위를 맞아 이웃이웃들을 위해 '2011 한가위 사랑의 송편나누기·한가위한마당콘서트'를 갖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열린 송편나누기 행사는 노숙자, 무의탁 노인, 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모자원,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시설에 송편 2말과 음료수 3상자 등을 전달해 주

김명남 작가의 순회 갤러리



하이패밀리 문화행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20주년을 앞두고 김명남 작가와 함께하는 순회갤러리를 준비한다. 1차는 서울 종로구(동의동 6번지, 02-730-7707)에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시하며 2차는 서울 서초구(양재동 115-9, 02-2057-0033) 하이패밀리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김명남 작가는 196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1988년 프랑스 베르시유 미술학교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판화그림 <인구의 인상들>을 만들었고, 살롱도톤에서 젊은 판화가상을 수상했다. 또한 33회 [시텔로 국립미술대전] [발매커 미술협회 살롱전] 심사위원장과 루에이말매종에서 열리는 [오늘의 판화제] [49회 살롱데 보지르 드 가르쉬]의 심사위원을 비롯하여 심사위원을 역임, 2000년부터는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아틀리에에서 창작활동을 하며, [베르시유 미술학교] 판화학과 종신 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www.hifamily.net

이주민선교 신학적 토대 마련

다양한 실천적 선교전략 소개, '이주민선교와 신학' 발간

예장 통합 총회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주민선교와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자료집 '이주민 선교와 신학'을 발간했다.

통합총회 국내선교부가 이주민선교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정책 자료집을 낸 것으로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선교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신학적 토대를 토대로 선교정책을 세우기 위해 이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명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고, 이들에 대한 선교 과제를 안고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때는 1993년부터이다. 통합총회는 1996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총회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노동자선교현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을 발간하여 총회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신학을 토론했으며, 다양한 실천적 선교전략을 소개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불법체류노동자의 감소와 결혼이주여성의 급증 등 내외부적인 환경이 상당히 바뀌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면서 총회의 이주민선교와 신학이 새롭게 토론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주민선교와 신학을 정립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이주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신학적 및 전문기를 통해 총회의 정책 자료를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장로교출판사를 통해 발간된 '이주민 선교와 신학 -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는 이주민 선교현장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신학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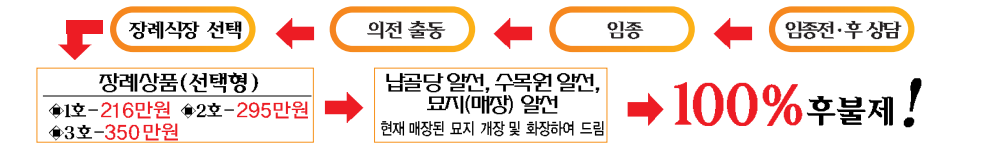
'이주민선교와 신학'의 출판감사에는 지난 5일(월) 오후 2시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2연수실에서 개최됐다.



영신상조 (장례) 전문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전화 : 031-444-5566

상조회사 선택이 고민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은 상조회가 우후죽순 같이 생겨나고 난립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렵고 부족한 서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계약금 또는 일시불로 받거나 매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선납제에 가입하신 고객들이 중도 해약할 시 상당한 피해를 당하거나 한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도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가입회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음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신상조' 장례전문도발서비스는 (계약금+월납회비+추가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100%후불제임으로 타 상조사에는 비교가 안되며 파다한 영업비용과 거품을 모두 제거한 장례상품 최저금액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며 내 가족처럼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바로고 정직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영신상조' 장례전문도발서비스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신상조회 일동 올림



영신상조 100% 후불제의 특징! - 본회(계약금+월납회비+추가비용)= 전혀 없는 100% 후불제임 - 타 상조사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최저금액 최고의 서비스 제공 - 영신상조는 모든 장례식장에서 행사를 편안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 본사와 약정한 행사비용은 발인 전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 장례 임종 전 · 후 즉시 연락주시면 30분 내 본사에서 출동함.

080-5566-4444

서호추모관

분양본부사무실 080-5566-4444 031-444-5566



최고의 시설과 예술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특급호텔식 분양기수55,000기로 소방·항온·항습·항균·시스템을 갖춘 완벽하고 아름다운 추모관 납골당입니다. 분양 : 교회단체단, 중증 또는 가족단, 부부단, 개인단, 분양을 원하실 경우 6개월, 1년, 2년까지 할부도 가능하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박인안 장로 011-896-7100 박현준 장로 011-9178-7501 정용원 장로 010-5329-5960 김기춘 장로 010-2260-7775